

#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수상 고교생, 유럽 견학

## 독일·스위스 친환경도시 현장 견학

한화그룹은 지난해 개최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8’에서 수상한 고교생들을 초청해 독일·스위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초청된 학생은 지난 7일부터 독일 작센안할트주 비터펠드의 독일 한화큐셀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의 ‘에너지 캠퍼스 뉘른베르크’,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친환경도시인 프라이부르크 등을 둘러봤다.

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21명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도 방문해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태광 교수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화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수상 고등학생을 초청해 독일 한화큐셀, 에너지캠퍼스 뉘른베르크 등을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화그룹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최근 8년간 누적 참가자 수 1만명을 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고교생 과학 경진대회다. 올해는 오는 3~4월 대회 흄

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 뒤 4~6월 1·2차 예선을 거쳐 8월 본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유한킴벌리 서울시·카카오와 소녀 보건위생 ‘맞손’

유한킴벌리가 카카오 등과 손잡고 소녀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한킴벌리는 서울시, 카카오커머스, 서울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함께 서울 강서지역 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생리대 약 10만 패드와 교육책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을 위해 카카오와 유한킴벌리는 생리대와 교육책자로 구성된 ‘옐로우 기프트 생리용품 나눔뿐만 아니라 2016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매년 100만 패드 이상의 생리대를 저소득층 청소녀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트, 입는 오버나이트 등 총 68패드로 구성된 생리대 세트와 생리 교육책자인 ‘우리는 생리하는 중입니다’ 브로셔가 포함되어 있다.

유한킴벌리는 이번 옐로우 기프트 생리용품 나눔뿐만 아니라 2016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매년 100만 패드 이상의 생리대를 저소득층 청소녀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또, 생리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생리대 ‘좋은느낌 순수’



(왼쪽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황우영 사무처장, 카카오커머스 박은호 부문장, 유한킴벌리 고객사업부문 박상렬 부문장,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고민석 이사장, 서울시 진성준 정무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에 이어 ‘좋은느낌 솜솜’을 출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9일)



48년생 일찍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60년생 좋다고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싶다고 달아나지 마라. 72년생 뿐만 대로 거두는 법이니 칙하게 살자. 84년생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49년생 이익에 너무 연연하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놓칠 수 61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면 된다. 73년생 좋은 것이 좋은 일을 부른다. 8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50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니 미워하지 마라. 62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라. 74년생 항상 진실이 최상의 답이다. 86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던 일을 마무리.



51년생 길 떠나는데 신발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3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귀심이 해결. 7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나 행동을 조심. 87년생 감정질서를 잘 해야 일이 성사된다.



5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64년생 행복은 가정의 회복에서 비롯된다. 76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88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음을 명심.



53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65년생 눈앞의 실속을 쟁기다 보면 이익을 놓치게 된다. 77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나니 조심. 89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건강에 신경 쓰자.



54년생 고집을 피우면 가족도 외면하는 법. 66년생 산토끼 잡으려 집도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7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90년 생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과욕을 부리지마라.



55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67년생 지나친 관심은 늘 상대를 지치게 한다. 79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록한 땅이 된다. 91년생 주띠, 데자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6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80년생 비밀 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92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5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69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81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9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5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70년생 병이 앓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82년생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94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5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3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95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8				
7	5	1			3	2		
3				9				
2			3	7		8		
3			4			6		
	6	2			4			
	7			5				
1	6			9	8			
		1			4		4	

			6					
	3	1		2	9			
2	4		8		1			
1	8			6	7			
2			3			4		
3	4			2	8			
8	2	9	3	6	1	7		
2	3	1	4	7	5	4		
			7					

스도쿠 정답								
2	5	9	8	1	7	3	6	4
1	6	3	4	5	9	8	2	7
4	8	7	6	2	1	5	4	3
7	9	6	8	1	4	2	9	6
5	2	4	9	6	3	7	1	8
6	3	2	5	1	9	6	4	3
8	7	5	1	9	6	4	2	9
9	4	1	3	2	8	6	7	5
3	4	9	6	7	5	8	2	1
7	6	2	3	8	1	4	5	9
1	8	5	2	4	9	7	3	6
6	3	4	9	1	7	2	8	5
2	5	7	8	3	6	1	9	4
9	1	8	5	2	4	6	7	3
5	2	6	4	9	8	3	6	7
8	9	1	7	6	3	5	4	2

문제 제공=보노스

## 선택의 시점

###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OTT에 관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률상으로 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만약 지상파와 방송사와 손잡는 SK텔레콤의 옥수수가 실시간 방송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 자로 적용되면 까다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도 재도입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앞마당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만 제한되는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디어 시장은 전형적인 ‘TV’ 시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 미디어로 기술과 콘텐츠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블랙마리: 밴더스 내치’와 같은 시청자 참여하는 획기적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조만간 관련 법안 심사가 다가온다.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 주인공이 국과 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 /silkn1@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기해년(己亥年)과 삼재



중국이나 한국에 있어 데자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이어서 우리 조상들은 데자꿈을 꾸면 복권이라도